

광주, 교회·요양원발 코로나 집단감염 확산

광주 1주일 넘게 확진자 두자릿수 이어가 ... 전남은 비교적 안정 정부, 거리두기 격상 않고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연장

광주에서 종교·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면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 누적 확진자도 이미 1000명을 돌파했다. '연말연시'임에도 종교장 등 도심 변화기는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한산한 반면 광주시가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마련한 익명 선별진료소는 비가 내리는 곳엔 날씨에도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남은 그나마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점으로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방역당국은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27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5명이 추가돼 총 누적 확진자는 1042명이다. 이날 에버그린실버하우스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 1명이 사망해 지역내 누적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다.

최근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9일 14명을 시작으로 20일 13명, 21일 26명, 22일 36명, 23일 15명, 24일 36명, 25일 28명, 26일 17명 등 일주일 넘게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최근 유행병 발생 현황을 보면 에버그린 요양원 관련 확진자가 52명째를 기록했으며,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종교시설) 관련 48명, 광주정사교회 관련 확진자는 32명이다. 이 밖에도 유사방문 방매 관련 18명, 영동포구 G3센터 설교 관련 15명, 기독교 병원 관련 13명 등이다. 주로 종교 시설과 요양원 관련 확진자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위중증환자 치료 병상 부족에 대비해 이날 전남대학교병원에 5병상을 추가하고, 잔여 7병상을 확보했다. 또 이날부터 시청광장(야외 음악당)에 무중상 상태에서 익명

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했으며, 예상 외로 많은 시민 345명(오후 5시 30분 기준)이 검사를 받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운영시간은 휴일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의료인력 등 4명을 배치했다.

전남은 지난 24일부터 3일간 모두 10명 미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남은 25일 5명, 26일 5명, 27일 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모두 549명이다. 영광에서 광주 1031번의 접촉자로 확인된 1명이 양성 판정 받았고, 광양에선 5명이 추가 확진됐다. 전남도는 무중상 환자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민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임시선별검사소를 목표에 이어 순천에도 추가했으며, 찾아가는 '이동 선별 검사서비스'를 29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운영한다.

사·도 방역 관계자는 "지역내 증가세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감염속도가 빨라진 변종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강화한 방역조치를 반드시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하지 않고, 28일로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고, 비수도권 2단계도 연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백운고가 철거 왕복 11차선으로 1989년 개통된 이후 31만에 철거된 백운고가 있던 자리가 왕복 11차선으로 거듭났다. 세월의 묵은 때를 벗어난 새로운 백운광장에는 오는 2023년 지하철 2호선 1구간 개통과 함께 푸른길 공원 산책로와 연계하는 공중보행로 등이 조성돼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문대통령 "국민혼란 사과...檢 성찰하라"

법원, '尹 정직 2개월' 정지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법원이 윤 총장 징계에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지 하루만이다. 문 대통령의 전격적 사과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시키고 방역 등 국정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검찰의 성찰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

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하면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9일만에 다시 사과를 하게 됐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사실상 국난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문제에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오늘 사과는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정 안정과 함께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회복 의지를 드러낸 만큼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의를 조만간 수리하는 등 내각과 청와대 개편에 나설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1월 중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차등지원

당정청, 코로나 피해 지원 대책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70%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이 차등지원된다. 피해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

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내년 1월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사실상 되돌려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 적용하는 조치다.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극복 사령탑 정세균 총리 인터뷰▶3면
스포츠 10대 뉴스▶18면
건축, 도시의 미래 되다 이이남 스튜디오▶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백신 내년 2월 접종·치료제 1~2월 상용화"

코로나 방역 사령탑 정세균 총리

정세균(사진) 국무총리는 27일 "내년 2월 중이면 국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고, 코로나 치료제의 경우도 내년 1~2월에는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인터뷰 3면> 정 총리는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들이 백신을 안심하고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세부

적인 사항까지 직접 챙겨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국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의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임상시험을 마치고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관계부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안전성과 효능을 검토하고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코로나 대확산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상향과 관련해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3단계로 상향되면 약 200만명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게된다"면서 정부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국내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오게 됨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각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들으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중이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New E. New Attitude.
A new form of Luxur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황금 서비스센터 (06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삼평대로 1041(마해동)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광명대로 516(수완동)
호수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이원대로 603(백갈 205호문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45-1000 광주광역시 광안구 광명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220 4 AM EX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차년:13,2도실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220 4 AM AMG line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차년:13,2도실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350 4M Av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차년:10,2도실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E 350 4M AMG line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차년:10,2도실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 연 연비는 표준모드에서 약한 연비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